출판계 활로찾기로 발행종수 소폭 증가

사회과학·아동도서 성장세 두드러져…만화출판도 늘어나

97년은 경기침체 속에서 출판계가 나름대로 활로찾기와 영역 넓히기를 위해 애쓴 한해였다. 베스트셀러 조작 사건, 채택료 비리 사건 등의 부작용이 없었던 것도 아니지만 신간도서의 출판량이 늘어난 것이 이를 반증한다. 특히 지난 2년 동안 계속해서 줄어들던 종수가 소폭으로나마 늘어난 것은 출판계의 의욕을 보여주고 있다.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나춘호)는 지난 한해 동안 2만 7313종, 1억8870만 7879부의 신간도서(정기간행물 제외)가 출간된 것으로 집계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종수는 2.4%로, 부수는 19.3%가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부수의 양적 증가는 그동안 납본 통계에 잡히지 않았던 교과서가 사회과학 분야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부수를 기준으로 분야별 증·감은 반반으로 나타났다. 상승곡선을 그은 분야는 사회과학, 순수과학, 기술과학, 예술, 문학, 아동이고 하향곡선을 그은 분야는 총류, 철학, 종교, 어학, 역사, 학습참고서이다. 특이한 것은 만화출판의 두드러진 성장세와 종당 1천부가까이 늘어난 평균 발행부수다. 책값도 권당 1천원 정도 올랐다.

시장확대된 아동도서 증가

발행종수에서 성장세를 보인 분야는 사회과학(10.6%), 아동(9.7%), 예술(9.6%), 역사(7.4%), 기술과학(6.1%)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과학 분야가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인 것은 교과서의 유입과 함께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을 반영하듯이 경제·경영 등의 실용서들이 어느 해보다 활발히 출판된 까닭이다. 금융·부동산·창업·출세 등을 주제로 한 책들이 대량으로, 특히 후반기에 집중적으로 쏟아져 나왔다. 아동도서의 증가는 시장규모의 확장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하향곡선을 그은 분야는 총류(16.1%), 학습참고서(11.3%), 어학(7.0%), 순수과학(1.5%) 등 4개 분야다. 학습 및 어학분야 도서가 줄어든 것은 경제한파로 인해 가계 위축을 염려한 결과로 보인다. 종수가 늘어났음에도 오히려 발행부수가 줄어든 분야도 있다. 철학(21.7%), 역사(8.4%), 종교(0.5%)가 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출판량이 증가한 것은 사회

97년은 경기침체 속에서 출판계 나름대로 활로찾기와 영역 넓히기를 위해 애쓴 한해였다. 지난 2년 계속 줄어들던 발행 종수가 소폭으로 늘었고 발행부수도 증가한 것이 그 반증이다.

1997년 출판통계

◆단위:종·부·원·%

◆기간:1997.1.1~12.31

	신간발행종수			신간발행부수			평균발행부수		평균정가		평균면수	
	1997년	1996년	증감률	1997년	1996년	증감률	1997년	1996년	1997년	1996년	1997년	1996년
총류	301	359	▲16.1	523,291	874,292	▲40.1	1,738	2,435	20,887	13,238	349	306
철학	733	722	1.5	2,692,690	3,442,341	▲21.7	3,673	4,767	10,099	8,338	311	270
종교	1,768	1,718	2.9	4,972,218	4,997,359	▲0.5	2,812	2,908	8,794	6,964	314	282
사회과학	4,268	3,856	10.6	74,117,846	36,325,378	104.0	17,365	9,420	13,340	14,990	383	437
순수과학	381	387	▲1.5	809,150	596,510	35.6	2,123	1,541	12,509	16,710	349	382
기술과학	3,581	3,373	6.1	4,879,750	4,647,828	4.9	1,362	1,377	14,977	14,114	399	400
예술	1,200	1,094	9.6	2,847,917	2,387,565	19.2	2,373	2,182	13,700	11,383	195	196
어학	1,448	1,557	▲7.0	5,731,066	6,917,740	▲17.1	3,957	4,442	10,977	10,906	300	270
문학	4,440	4,411	0.6	13,610,416	11,911,706	14.2	3,065	2,700	6,720	6,084	283	280
역사	1,015	945	7.4	1,985,625	2,168,808	▲8.4	1,956	2,295	10,941	14,448	344	373
학습참고	3,640	4,107	▲11.3	60,149,260	69,836,385	▲13.8	16,524	17,004	13,397	9,693	174	165
아동	4,538	4,135	9.7	16,388,650	14,030,811	16.8	3,611	3,393	8,069	7,531	90	89
계	27,313	26,664	2.4	188,707,879	158,136,723	19.3	6,909	5,930	11,102	10,332	271	272

(▲:감소표시) 자료:대한출판문화협회

과학 분야에 속한 교과서의 대량 유입에 따른 현상이다.

지난해 특기할 만한 것은 만화출판의 증가를 들 수 있다. 작년대비 종수는 12.6% 증가한 6297종, 부수는 30.9% 증가한 2360만 5460부가 출판되었다. 2년 연속 급성장을 하고 있는 만화는 사회적 인식이 빠르게 바뀌면서 앞으로도 출판량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문 교양만화를 전문으로 출판하는 출판사들이 시장에 경쟁적으로 뛰어들면서 증가를 부추겼고, 일본 폭력만화의 무분별한 베끼기 출판도 한몫 거들었다. 만화의 증가는 미디어 문화에 익숙한 독자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기도 하다.

아동도서의 약진도 눈여겨 볼 만하다. 작년대비 230만부가량 늘었다. 이는 여러 출판사들이 불황 타개책으로 수요자층이 상대적으로 두터운 아동도서의 개발에 힘을 쏟은 결과로 보인다. 최근들어 아동도서 단행본 출판사들도 급격히 늘어났다. 전집 출판의 대형 출판사 틈바구니를 속속 파고든 단행본 출판사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던 한 해였다. 소재도 다양화하여 전래동화·위인전류에서 벗어나 창작동화·그림책·환경 및 자연보호·과학이나 역사 학습물·만화 등의 영역으로 확대됐다. 내용뿐만 아니라 독자층을 연령별 등으로 세분한 것도 출판물이 늘어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대중문화의 한 척도로 여기는 문학분야의 발행부수는 14.2% 증가한 1361만 416부가 출간되었다. 그 중에 소설이 60.3%를 차지하고 시와 수필이 뒤를 잇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 시장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진 학습참고서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작년대비 970만부가 줄었다. 특히 지난해는 채택료 비리 등의 부작용으로 참고서 출판업계가 거세게 흔들렸다. 또한 가정배달용 학습지 시장에 기존의 단행본 학습출판물이 위축되고 있음도 감소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종당 평균 발행부수는 전년대비 16.5%가 증가한 6909부로 나타났다. 이는 종당 1천부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평균 발행부수가 가장 많은 분야는 교과서 납본량이 많았던 사회과학 분야로 1만 7365부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학습참고서, 어학, 철학 등으로 나타났다. 기술과학, 총류, 역사분야는 평균 2천부를 밑돌았다.

번역서도 늘어나

책값은 권당 1만 1102원으로 지난 해보다 약 천원이 올랐다. 제작비의 상승이 책값에 반영되며 단가 인상으로 이어졌다. 특히 작년 후반기 환율 상승으로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종이값과 외국에서 리스한 인쇄기계의 환차손실분, 그리고 필름·인쇄판·잉크 등의 가격 상승이 단가 상승을 불러왔다. 책값이 가장 비싼 분야는 총류로 평균 2만 887원이었고 가장 저렴한 분야는 독자층이 두터운 문학류로 6720원이었다.

책 한권당 평균 면수는 271면으로 나타났다. 기술과학분야의 책이 399면으로 가장 두꺼웠고 아동도서는 90면으로 가장 얇았다. 1면당 평균 단가는 40.9원꼴.

종수에서 전년대비 16.7% 증가한 번역서는 1328만 9501부가 출간됐다. 장르별로는 만화, 문학, 아동, 종교 순으로 많았다. 으뜸을 차지한 만화의 대부분은 일본만화를 번역한 것으로 분석된다. 번역서의 증가는 통계를 내는 연말 이전에 이미 출판작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환율파동과는 무관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종수가 소폭 상승한 것은 활로찾기에 나섰던 출판계의 노력이 맺은 결실이었다. 그러나 연말에 밀어닥친 환율파동으로 출판계는 이미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활로찾기에 나서야 할 것 같다. — 오완진 기자